

**인권주일
설교**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26~28>

이상경 목사 (가와사키교회)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인권주일은 '제38회 정기총회 (1985.10.22 ~ 24. 후쿠오카교회)에서 1923년 9월1일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약 7천명의 조선인이 유엔비어에 선동된 사람들로 인하여 학살되어 그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인권주일' (예식서)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9월 18일에는 'KCCJ 제19회 인권 심포지엄' 이 KCCJ에서 개최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는 올해 2023년 선교 115년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조선반도)와 일본 사이를 살아온 '재일 그리스도인' (기류민)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로부터 100년' 이 되며, 9월 3일 동경교회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0년 그리스도인 추도집회'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성찰하고자 하는 바람이 안내문에 적혀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 10만명이 넘는 사망자·행방불명자가 발생한 간토대지진 학살로부터 100년을 맞이합니다. 100년 전의 대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와는 별도로 유엔비어를 확인 없이 사실로 인정한 군대와 관헌, 그리고 민간인에 의한 자경단에 의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또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제노사이드)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간토대지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서 있는가? 라고. 이 물음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재일본한국YMCA의 자료실에는 '간토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진으로 소실된 회관 터에 모인 당시 YMCA회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재일본한국YMCA 뉴스레터 『카케하시(가교)』 제12호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토대지진 발생 후, 조선인이 방화, 습격, 우물에 독약 투입을 실시했다는 유엔비어(테마)가 확산되어 그것을 믿은 군과 일본인 민중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지만, 여기에 비친 사람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YMCA의 간사와 회관에 살고 있던 기숙사생들은 소실된 회관을 떠나, 일단 長崎村(나가사키무라, 현재의 토시마구)에 있던 최승만간사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만, 거기에서 板橋(이타바시) 경찰서로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그 후 1개월 남짓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승만씨는 회상록에서 나가사키무라로 이동 하는 도중에 무기를 가진 채 향군인과 자경단이 수상하게 여긴 일, 자신이 경찰관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있었음에도 '조선인을 내려라', '우리에게 넘겨라' 라는 떠들썩한 군중에 의해 수십 번 끌려갈 뻔하게 된 일, 심지어 구류된 경찰서 내에서 위험한 군중의 습격을 받게 된 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의 탄식과 희망을 전하며, 절망적인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도바울의 시대는 로마제국이 지배하는 현실이었지만, 지금의 세계 현실도 '인간의 욕망' 으로 인한 전쟁, 격차, 빈곤, 헤이트 스피치, 차별 등 많은 과제로 인한 탄식과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탄식과 신음' 을 말할 수 없는 '탄식' 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며 함께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계' 를 느끼고, 신음하며 탄식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불어 서로 관계하며, 공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나눔과 연대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탄식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사람으로서, 매일 이 사회의 한 명의 주민으로서, 그 존엄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주민 사이에 타문화와의 교류가 더 한 층 깊어지고 넓어지며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구조가 정비되게 하여주소서. 특히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전 세계가 전에 없었던 곤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지만 더욱 서로에 대한 신뢰감은 나날이 더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총회 인권주일에배 기도문 및 교독문' 인용)



지진으로 소실된 회관 자리 앞에서 당시의 YMCA회원들

3년 이상 코로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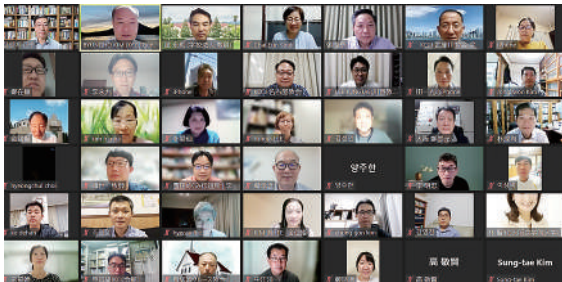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선교과제」 주제로

3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선교위원회가 8월 20일(주일) 저녁 7:30-9:30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과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선교위원장 조영철 목사(오사카북부교회)의 인사말과 기도로 시작되어 위원장의 강사소개 후, 강사인 장성배 목사(감리교신학대학 선교학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장교수는 자신의 최신 저서인 <메타버스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선교과제에 관하여 논하면서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현대의 시대에 교회에 여러가지 선교과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 관하여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래 교회의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제안이 있기는 했지만 미래의 교회상 혹은 선교의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로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선교의 도전이 되었다.

강연 후에는 선교위원 장경태 목사(후나바시교회)의 사회로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었다. 그 후, 위원장의 감사의 인사와 부총회장 양영우 목사(무코가와교회)의 기도로 세미나를 마쳤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의 참석자는 49명이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고 : 조영철목사)



3년 이상 코로나

결성 60주년 개최 준비

전국 교회에 참가와 기도, 봉사를 요청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는 2023년 11월 3일 오사카 교회에서 전국의 청년, 다양한 신도들로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는다. 설교/찬송/간증/기도를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눈다.

전국에 교회청년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 전국 교회 여러분께서 기념대회에 이해와 협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봉사자를 구한다. 청년을 향한 메시지/조언, 청년 선교/육성 제안, 특별 찬양, 기타 청년을 위한 활동 등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협 임원은 청년 개개인의 유대 형성을 위해 일하는 틈틈이 개별 교회 방문을 계속했다. 도쿄·요코하마·가와사키·벵푸·나고야·고베 등.앞으로도 방문을 계속한다. 전체 흐름을 보면 어린이/청년의 교회 이탈, 청년회의 축소, 간증/전도 활동의 의기소침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원들이 방문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가운데 활기찬 곳도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원한다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락처: zenkyokccj@gmail.com (보고 : 엄지용 대표)

평야교회

청년 리바이블 캠프 개최

베트남 청년들 60명이 참가

8월14일(월)~16(수)의 2박 3일간, 히라노교회 청년회는 미에현 나바리시 카리스 리프레쉬센터에서 청년들의 영성강화와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리바이블'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청년회 여름수양회를 가졌다. 동경에서, 기후에서, 후쿠오카에서 참석한 베트남 청년들과 베트남에서 참석한 몇몇 신도들도 있어 여름의 열기만큼 은혜로 뜨거운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다.

히라노교회는 청년회원 대부분이 베트남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수양회에서는 베트남에서 초빙한 레티홈목사(항송교회)를 주강사로 베트남어로 직접 전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바베큐를 포함한 영육간의 양식의 풍성함으로 몸도 마음도 배부름이 있는 은혜 넘치는 수양회였다.

때마침 태풍7호가 북상하여 미에현으로 올라오는 시간과 수양회 기간이 겹쳐져서 긴장하며 더 많이 기도로 준비했었는데, 태풍은 밤사이 빗겨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형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은 간증을 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한 4명의 결신자도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체험하는 소중한 수양회였음을 전해드리며 주께 영광을 올린다.



서부여성회

삼역회의 및 연수회 개최

복음의그림엽서그리는법의강습수강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는 제20회 임원확대연석회의와 연수회를 7월 6일(목) 오후 1시부터 무코가와교회에서 참석자 14명(3개 교회)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각 교회여성회 활동이 축소되는 가운데 서부여성회에서는 각 교회 행사 등에 맞춰 교회 방문을 하고 각 여성회의 요청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다.

연수회에서는 전회에 큰 호평을 받았던 복음의 그림 엽서 편지그리는 법의 강습을 후쿠다 토모코씨(카와니시교회 집사)로부터 받았다. 성경 말씀으로 이미지화된 강사만의 오리지널 그림으로 참가자들은 물감으로 색칠하면서 편지 받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소망을 담아 제작했다. (보고 : 최미혜자, 황영옥)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0년 그리스도인 추도 집회

선언문 (요약)

20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로부터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조선인·중국인이 학살된 사실에 마주하여 지금 우리의 태도를 묻는 무거운 과제를 함께 담당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관동대지진 이후의 혼란 속에서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되는 대참사가 관동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학살의 근원이 되는 <불령 조선인(不逞鮮人) 폭동>의 유언비어의 유포를 내무성·관헌이 주도하고 군대·관헌·행정의 지시로 자경단을 조직함으로써 학살에 민중을 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학살의 실태 조사를 방해하고 보도를 통제함으로써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학살에 관여한 군부와 관헌은 누구 한 사람 그 책임은 묻지 않고, 재판을 받은 자경단원들도 다음해 1월의 황태자의 결혼에 때를 기해 특별 은사로 전원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이 부조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민중의 책임을 지금까지 100년간 묻지 않고 침묵되어 왔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관동대지진 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조선)반도 강제병합 이전부터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을 조선총독부가 철저히 탄압한 것에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1919년의 3·1 독립운동의 철저 탄압, 1920년 가을의 중국 간도의 혼춘(暉春)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3000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 민중을 '토벌' 해 온 군과 경찰의 적개심과 공포심이 <불령 조선인(不逞鮮人)>이라는 혐오(Hate)로 본토의 일본 민중에게도 퍼진 가운데 1923년의 대학살(Genocide)이 일어났습니다.

패전 후 7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일본 사회는 그 100년 전의 대학살의 역사에 마주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계속 불문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에 관한 국회 질문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답변이 반복되고, 또 동경도의 학살 희생자에의 추도사를 보내지 않고 중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라는 제도적 혐오와 함께 민족 차별적 혐오는 오늘 일본사회에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육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의 교회는 방관자로 남아 살육을 피해 도망치는 조선인·중국인에게 문을 열지 않고 침묵했던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동 대학살로부터 100년의 지금, 부활의 주님의 부름 받아 '이 땅의 소금' 과 '세상의 빛' 으로 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관동 대학살의 역사에 마주 추도의 사역을 계승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

쟁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적의와 차별이 낳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증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 (마태 25:40)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우리는 목인이라는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의 본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3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그리스도인 추도 집회 실행위원회



2023年9月11日、10万人を超える死亡者・行方不明者を生んだ関東大震災被害から100年を迎えます。100年前の大震災で、自然災害とは別に、流言蜚語を確認もなく事実として認定した軍隊と官憲。そして民間人による自警団によって、6000人以上の朝鮮人(また700人以上の中国人)が虐殺(ジェノサイド)されたという大惨事が起こりました。関東大震災から100年がたつ今、私たちキリスト者は関わっ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あなたはどこに立つのか? この問いの前に、私たちは自らを省みつつ、「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犠牲者100年キリスト者追悼集会」を開催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日時: 2023年9月3日(日) 16:00~17:30
会場: 在日大韓基督教教会東京教会
〒162-0827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http://www.tokyoyodurch.com/

メッセージ: 金鐘洙 牧師
関東虐殺100周年追悼事業推進委員会 執行委員長
韓国基督教長老会 牧師

参加費無料・申込不要(会場での献金があります)
以下のリンクからオンライン配信を視聴できます。
<https://youtube.com/live/fkVMTBC5GDU?feature=share>
※配信に関する詳しい情報はNCCホームページにも掲載しています。

主催: 「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犠牲者100年キリスト者追悼集会」実行委員会
共同代表: 吉高 叶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議長)
金炳鎮 (在日大韓基督教教会幹事)
光延一郎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わたしたちは忘れない」
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犠牲者100年キリスト者追悼集会



関西聖書神学院主催 聖地巡礼案内

関西聖書神学院(学院長 金武士牧師)は以下のようにイスラエルを中心とする聖地巡礼を計画しています。

関心がある方は教務趙永哲牧師(080-5318-9058/06-6371-1914)、鄭然元牧師(090-8384-3199/06-6712-3377)にご連絡ください。

- 題目: イスラエル (イスラエル/Israel) 聖地巡礼
- 日時: 2024年2月28日(水)~3月7日(木)8泊9日

목사 제명 공고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 치리부는 성서·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규칙·계규 재판규정·권징조례에 따라 교회의 신성(神聖)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중히 심의한 결과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 소속 지방목사 김영주(前니시노미야교회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고인 김영주를 제명에 처한다.
2023년 4월29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 치리부
부장 임영재, 부원 이종재 양창희 김길수 한세일

특별연재 7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7)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7> Genocide(대량학살) : 역사 봉인(封印)과 병든 기억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는 올해, 5월23일, 6월15일, 6월20일, 3회에 걸쳐, 국회에서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질문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전후 70년을 맞이한 2015년부터 11번의 질문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가 조사한 결과 정부 안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는 답변을 반복해 왔다.

1923년 12월, 山本権兵衛(아마모토 곤베이)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田淵豊吉(타부치 도요키치)의원의 질문에 대해 “속고하여 다른 날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永井柳太郎(나가이 류타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일본 정부는 전전(戰前), 전후(戰後) 100년간, 대학살의 사실을 은폐하며 봉인하며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해 왔다.

빛진 역사에 마주하지 않고 역사를 봉인한 결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43년, 1944년에 일본에 미군의 대공습이 시작될 무렵, 내무성 경보국의 기록에는, 공습에 의한 대화재의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다고 하여, 다시 학살의 위험에 대하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인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기록과, 일본인은 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을 습격하기 때문에 일본인은 죽창(竹槍)이나 집에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林慶植『在日朝鮮人關係史料修正』第五卷 13頁、15-17頁)

그러나 정부 당국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학살 사실을 전하려는 언론을 통제해도 인간의 공포와 대학살을 일으킨 유언비어의 뒤뜰린 기억은 지울 수 없으며 병든 기억으로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75년이나 지난 2020년 여름, NHK히로시마(広島)는, <히로시마 타임 라인>이라고 하는 기획을 하였다. 그것은,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전쟁 역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1945년 패전 당시의 시대에 트위터(Twitter)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람의

일기를 인용하여, NHK 스탭이 현지 고교생들을 모아서 토의를 하게하여 당시 일본 사회의 광경을 묘사한 트윗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완성된 트윗터에, “조선인이다!!... 전승국이 된 조선인 군중들 열차를 타고 온다!” 라는 문구가 트위터 SNS에 공개되어 그것을 본 재일 코리안을 전율하게 하여, 시민단체는 NHK에 항의하고 토론을 신청했다. NHK는 얼마 안되어 애매모호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봉인할 방침을 관철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NHK히로시마는 이 문제에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마주해야 좋을지, 사고(思考)가 정지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며, 이것이 전후(戰後) 일본의 역사 은폐(즉, 교육에서 그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음) 교육의 하나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NHK 스탭과 고교생들이 관동 대학살의 역사, 또한 패전의 대공습 당시조차 적의(敵意)와 차별과 공포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지게 만들고, 일본인도 조선인도 병든 기억에 묶여있었다는 역사를 바르게 배웠다면, 과연 그와 같이 트윗을 나쁘게 만들어 냈을까?

제노사이드(Genocide대학살)의 역사를 숨기고 언론을 통제한 대일본 제국의 정책을 전후(戰後)의 일본 정부도 계속 봉인한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 속에 병든 기억을 전하고 확장해 가면서, 결국 그 때에는 멈추지 않는 헤이트 클라임(hate crime중오 범죄)의 고름을 계속 분출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asahi.com/sp/articles/photo/AS20200916000201.html

신도위원회 주최 행사 안내

●전국 성경강연 캐러밴 시작

신도위원회에서는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청년회 재건, 청소년 육성에 힘쓰고 있다. 금년도 주요 활동으로 ‘전국 성경강연 캐러밴’을 시작한다. 이는 전국 5지방에서 성경강연회를 개최하여 신도들의 신앙의 심화를 도모하는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회 내 교회와 신도들의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먼저 9월10일 서남지방(장사 :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 장소: 후쿠오카교회)을 시작으로, 9월 24일에는 관서지방(장사: 동지사대학 기하라 카츠노부 교수, 장소: 교토교회), 11월 5일에는 서남지방(장사 : 오키나와기독교원대학 총장 김영수 목사, 장소 : 오사카교회)에서 진행한다. 서부, 중부, 관동지방의 성경강연회는 내년 봄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성경강연회가 배움과 신도 간의 교제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많은 교회 관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청년수양회가 10월에 개최

올해는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집회가 오는 11월 3일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된다. 그 전 단계로, 전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의 성장과 동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전국청년수련회가 오는 10월 6일(금)~7일(토) 호텔롯데 미이스(오사카시)에서 개최된다. 원래 수양회는 올해 8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10월 개최로 변경되었다.

전국청년수양회도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4년 만에 개최된다. 그동안 방역을 위해 재택근무를 강요당하고, 온라인 예배가 주류를 이루는 등의 변화는 교회 이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전협 창립기념행사를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삼아 전국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련회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오사카교회(TEL (06)6712-3377 FAX (06)6712-3378)/담당: 한선영 전도사, 양양일 장로로 하면 된다. (보고: 양양일 신도위원장)